

위대한 지성들의 신화와 카리스마 벗기기

폴 존슨 지음 「지식인들」

정신적 삶을 풍부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데 있어 우리가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위대한 지성인들은 과연 자신들의 사상에 걸맞는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진실된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폴 존슨은 「지식인들」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知性들—이라고 우리가 알고있는—에게 덧씌워진 신화와 카리스마를 적나라하게 벗겨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특히, 지식인의 윤리 및 판단에 관한 자격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 자신은 과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가정과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바르게 처신했는가. 이성관계와 금전문제에 있어 부당한 것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진정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을 기록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대로 삼아 유명한 지식인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에밀」, 「사회계약론」 등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장 자크 루소. 그는 자기연민에 깊숙이 빠져있었으며 남의 동정심, 특히 젊고 부유한 귀부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부당한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그의 이 자기연민의 배경에는 지독히 강한 자부심이 있었으며,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나 또는 자질면에 있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고 느꼈다. 또한 「에밀」을 쓴 사람으로서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아이들을 연구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 돌보기 싫어 고아원에 보내버린 비정한 아버지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우도 논문을 쓰는 데 있어 자신의 예측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합당한 사실만을 예로 들었으며, 통계 등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인용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쳤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집에서 평생토록 노동력을 제공한 가정부 렌헨에게 임금 한 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 일」이 삶의 목적이었던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을 도박과 성욕에 시달렸으며 상속받은 유산에 집착했다. 이 위대한 작가의 항목에 붙여진 「하나님의 큰형」이라고 하는 문구가 그의 내면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톨스토이의 경우 지식인이 살아있는 인간을 희생시켜 추상적인 이상을 추구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

이들 지식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주의, 더 나아가 「자기도취」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는 모두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은 수용하지 못했다.

버트런드 러셀에게는 이들과 달리 자기도취 같은 것은 없었지만 여성관계에서 착취적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지성의 힘에 대한 신념이 그토록 강했으면서도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면 그의 견해나 행동은 대부분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존슨은 이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정, 친구, 동료와의 관계, 이성관계, 금전문제 등에 관한 현존하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 이들이 실제 삶에서 자신들의 사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부조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들 지식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들의 삶의 본모습이 너무나 반지성적이어서 우리가 받게되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 한 인물을 숭배하는 것과 그의 사상이 미치는 영향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최성우

서울 강서구 화곡5동 82-6(2/7)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 독서계에서 매우 골치아픈 존재이다. 몇년전 하루키가 처음 소개된 후로 주로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그의 감각적인 문장과 독특한 분위기에 심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몇몇 작가들의 작품이 그의 문체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소위 하루키 열풍에 대해 매우 염려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하루키 열풍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의 모든 책들을 꾸준히 베스트 셀러의 대열에 올려놓곤 한다.

최근에 내가 읽은 하루키의 수필집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는 아마도 그러한 하루키의 이름값에 편승한 출판물임에 분명하다. 작가의 이름이 책 제목보다 더 크게 인쇄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의 수필이라면 뭔가 색다른 맛이 있을거라는 기대로 난 그 책을 사서 읽었다. (이쯤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하루키 신봉자인가?)

그의 수필은 무척 가벼웠다. 그의 글에 등장하는 소재는 그가 즐겨먹는 두부, 맥주마시기, 영화얘기 등등의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다. 책을 읽어나가며 나는 하루키의 어법을 흉내내어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거지? 이런 하릴없는 글들을 읽고 있다니. 그것도 우리 얘기도 아닌 일본 사람의 얘기를…… 그러나 그의 글을 다 읽고 나서는 또 이런 물음을 던져야 했다. 그런데도 난 왜 끝까지 재미있게 읽은 걸까? 자, 무엇 일까. 그의 글을 재미있게 읽은 죄로 나는 내 나름대로 그의 글의 미덕을 두어가지 찾아보겠다.

첫번째로 그의 글을 읽으면 사소한 것들에 대한 작가의 명료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삶의 의미나 철학이니 하는 것들을 말한다. 또한 문학이란 모름지기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은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사람들의 일상은 얼마나 무원칙하고 영성한다. 그 에반해 하루키의 글들은 그가 자신의 일상을 매우 소중하게 꾸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먹는것 하나, 음악 한국에도 좋고 싫음이 분명한, 그리고 느낌이 풍부한 하루키의 명료함은 독자들에게 사소한 일상을 성실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욕을 준다.

두번째 미덕은 그의 글의 자유로움이다. 아무리 수필이 무형식의 장르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구성과 일관성은 건지하기 마련인데 하루키의 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유로움을 구가한다. 느낌이건 경험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식이다. 그 자유로운 주절거림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울러 책 속에 삽입된 삽화도 무척이나 단순하고 분방하고 재미있다.

만약 문단에 하루키 같은 작가들만 있다면 뭔가 좀 곤란할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그와 같은 작가는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루키 같은 작가는 있으면 더 재미있는 그런 작가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상이 영성한 이들에게 하루키의 수필을 권한다. 물론 안읽어도 상관없지만 읽으면 더 재미있고 기운나니까.

글의 말미에 두개의 바램을 덧붙이자면 하

나는 우리 문단에도 일상적 사소함에 대한 솔직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의도되고 과장된 사소함의 포장은 냄새가 난다.) 또 하나는 미숙한 감성들이 하루키를 읽으며 그의 내면적 미덕은 간과한 채 하루키가 그려내는 일본풍의 세계 자체에 탐닉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유경중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518-2

이인화 지음 「영원한 제국」

허구라는 소설의 장치가 얼마나 치밀했던지,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작가의 “이 책은 허구이다.”라는 말에 난 그만 책을 소리나게 놓고 말았다. 그러나 그 허구라는 장치는 소설을 소설이게 해주면서 우리들에게는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현실을 맛보게 하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새삼 알 수 있었다.

‘나’라는 가상의 인물이 ‘이인몽’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인물이 지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밀을 담고있는 ‘취성록’을 읽어 나가면서 소설의 형식으로 그 책을 번역한다는 내용의 이 책은, 조선 후기 왕인 정조의 죽음이 독살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것이 허구라는 이름으로 소설의 테두리안에 갇혀 있어 진실이나, 아니냐를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겠지 만 어쨌든 이 책을 읽는 동안은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지를 쫓아가느라고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자주 입에 올리던 장희빈에서 정약용, 최무수리, 영조, 이이, 이황, 게다가 열하일기의 박지원까지 생생하게 만나게 해주고, 망국적인이란 수식어까지 붙어있는 당파의 뿌리를 파헤쳐 주며, 또 시경외에 여러 성인들의 고전의 여러 경구까지 인용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왕가에 얽힌 여러 비사까지 총동원된 듯한 이 책은 과연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감히 지어 낼 수 있었던 것일까? 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여기적인 내용은 분명히 사실일꺼야’라고 독자로 하여금 우기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노론에 의한 모함이었음을 알게 되는 영조가 체제공이라는 남인의 우두머리 격인 신하에게 詩經의 「울베미」라는 시로 금동지사라는 역사의 진실을 남

기고, 개혁의 기치로 왕권강화를 내건 정조는 그 금동지사를 이용하여 당파의 고질적인 구시대의 악습을 일소하려고 하며, 그 와중에 일어나는 규장각 검사관의 죽음을 시작으로 정조를 흠모하는 이인몽의 눈에 비춰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조선시대의 자화상이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책임이 결코 어느 한 사람, 한 당파의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만 안 되었던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으로 이 책에 내용이 얼마나 흥미 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지 짐작할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선이라는 가면을 쓴 악이 우리 주위에 더 오래 머물러서 있고 있다. 정조라는 거인을 기다리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주인공인 시대에 서 있고,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조라는 개혁의 인물도 시대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빨리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왜 역사는 그렇게 늦게야 진실을 드러내는 것일까? 좀 더 빨리, 아니 즉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해 준다면 선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아마 작가가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이 책을 써 나간 것은 아닐까? 책 속에 간간히 목소리로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은 작가의 분신이 분명할 것이다.

소설이 지닌 묘미를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안 지금은 당장이라도 책방으로 달려가 역사 소설이라는 명칭의 소설을 한아름 사 안고 싶을 뿐이다. 단, 그 소설들이 허구를 이용해 멋대로 역사를 조작하지 않고, 가슴아픈 역사의 진실을 작가가 포용하고 있다면...

조은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84-229호 27/6

「세상은 내게 모든 것을...」

나는 평소에 여성문학을 많이 보는 편이다. 그리고 책을 선택할 때는 서평이나 또, 기존 작가들의 글에서 조언을 받는 편이다. 메이브하란의 이책 역시 후자에 의해 선택된 책이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신문사 편집장인 남편

을 둔 리즈라는 주인공은 신설방송국 프로그램 편성자가 된다. 그녀는 의욕을 가지고 직분에 임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맞물리면서 죄책감과 일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갈등한다. 24시간 고용의 유모를 두고 있는, 경제력도 상당한 그녀는 우리나라로 보면 일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거기다 우리나라 특유의 상하급 고부 갈등 등 시집과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의 비중 같은 압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부가 일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부부 중심의 관계에서 오는 위태함도 있었다. 그녀는 더 좋은 아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좋은, 힘들게 얻은 자리를 그만 둘 결심을 한다.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 주부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자신의 일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직장 대신 가족을 선택했을 때 남편은 그녀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별거 과정 후 다시 결합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친구와의 우정도 원상 회복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신, 불륜의 댓가가 윤리관 때문에 희생되지 않았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추리 소설 같은 사건의 반전들, 자유로운 성생활의 노골적 표현 등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흥미에 치우친 감도 있다고 생각된다. 페미니즘 소설은 이래야 한다거나, 가족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해야만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결국 탈선했던 남편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부부간의 화해로 마무리된 점이 처음의 문제 제기엔 비해 애정적 결론에 그치고 만듯한 느낌을 준다.

즉, 일과 가정을 양립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대처 방법이 있어 다소 즉흥적인 태도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지 못했기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다행히 이 책의 내용은 경직된 목소리로 외치기보단 탄탄한 구성력과 경쾌한 문체, 도시적 이미지 등 긴 장편임에도 지리하지 않은 소설적 재미를 확보하고 있다.

김영춘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707-342번지

새로운 출판문화의 창출! 이것은 바로 헵시바의 바램입니다

헵시바는?

- 전산식자 전문업체입니다.
- 여러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그 유익을 사용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동시작업으로, 작업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곳입니다.
- 출판문화인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곳입니다.

헵시바의 프로그램은?

- 헵시바한글다듬기(교정프로그램)
- 컨버전프로그램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압축교정
- 전집류의 용어통일 작업 등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603호
전화 265-9240,1 · 팩스 263-1992

여기 전산사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